경제 매크로 이벤트 데이터의 이면분석

미국 1월 고용: 경기 둔화 우려를 제한

Analyst 최예찬 | 경제/FX/원자재
02-3779-3519
yc.choi@sangsanginib.com

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확인

셧다운으로 연기되어 2/11 발표된 미국 1월 비농업고용자 수는 전월대비 13만명 증가를 기록했다.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5~7만명과, 전월 4.8만명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. 실업률은 4.3%를 기록하였는데, 컨센서스와 전월치인 4.4%를 하회한 수치다. 더불어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대비 3.7%를 기록, 컨센서스(+3.6%)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견조한 미국 고용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.

세부 내용은 다소 아쉬우나, 긍정적 요소도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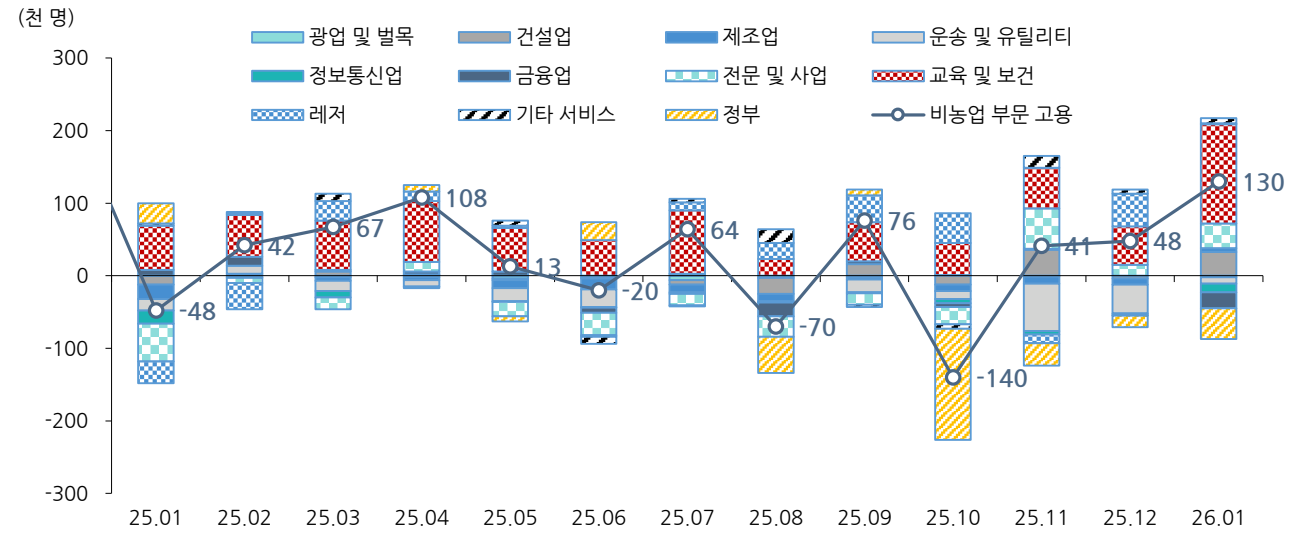
비농업 고용의 세부 변화를 살펴보면 건설업(+3.3만명)과 교육 및 의료업(+13.7만명)에서 큰 폭의 고용 증가가 확인되었다. 반면 금융업(-2.2만명), 정보통신업(-1.2만명), 정부(-4.2만명)에서 고용의 감소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. 건설업의 견조한 고용은 실물 투자 모멘텀이 살아있음을 시사한다. 1월 미 동부는 평년 대비 한파가 이어졌는데, 날씨 민감도가 높은 건설업 특성상 이는 부정적 요인이었다. 그럼에도 건설업이 견조한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은, 데이터센터 투자 등 실물 인프라 수요가 그만큼 강했음을 시사한다. 교육·의료 업종의 대폭 증가 역시 긍정적이나, 비경기순환 업종이라는 점에서 경기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. 한편, 평균임금이 높은 금융 및 정보통신에서의 고용 감소는 질적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다. 특히 정보통신 업종의 '20년 이후 누적 고용 추이를 보면 '22년 11월을 피크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. 이는 '22년 11월 ChatGPT(GPT-3.5) 출시 시점과 궤를 같이하며, AI로 인한 테크산업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. 종합하면, 헤드라인 수치의 강세는 분명하기에, 미국 경기 부진 우려는 제한된다. 다만 이를 미 고용시장의 본격적인 추세 전환으로 판단하기에는 업종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.

BLS 연간 벤치마크 하향 조정

1월 고용보고서와 함께 발표된 연간 벤치마크 수정은 '24년 4월~'25년 3월 기간 동안의 고용을 -89.8만명 하향 조정하였다. 이는 '25년 9월 추정치인 -91.1만명 보다는 개선된 결과다. 이로 인해 '25년 전체 고용 증가분이 기존 58.4만명에서 18.1만명으로 40.3만 명 감소하였다.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4.9만에서 1.5만명으로 감소하게 된다. 지속적인 고용 벤치마크 하향조정은 고용 데이터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다.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, 1월 고용 증가폭(+13만)은 하향 수정된 '25년 월평균(+1.5만)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, 고용시장이 추가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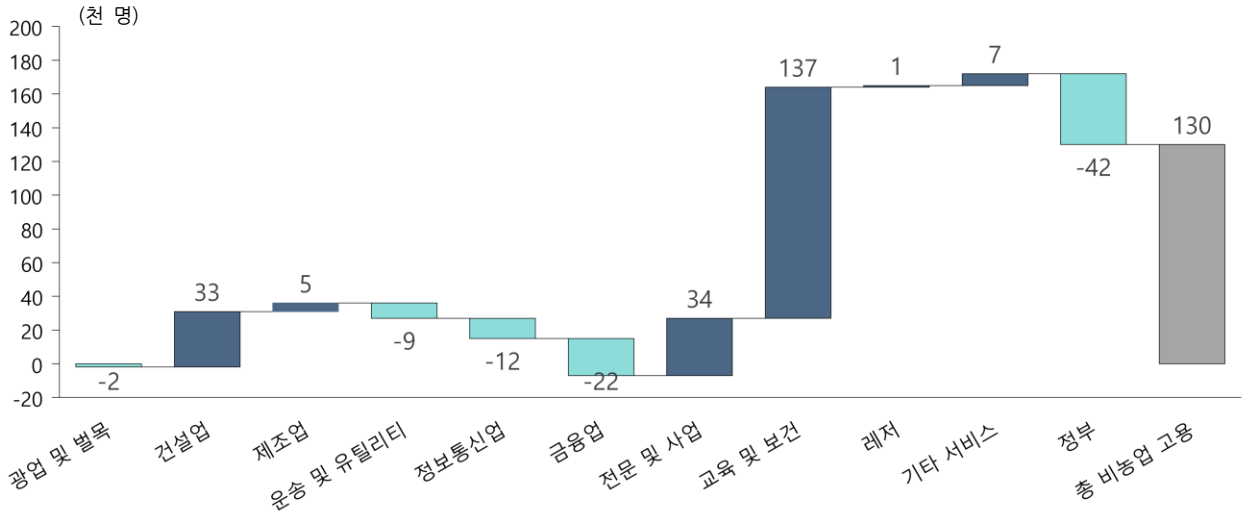
QR코드로 간편하게
상상인증권
투자전략팀 채널

그림 1. 월별 비농업 고용 기여도 분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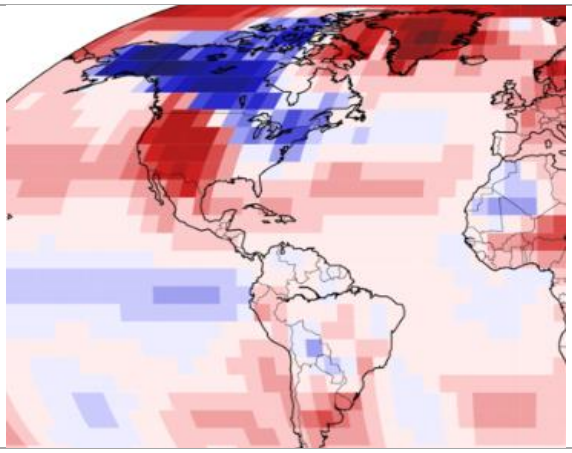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2. 2026년 1월 비농업 부분 고용 분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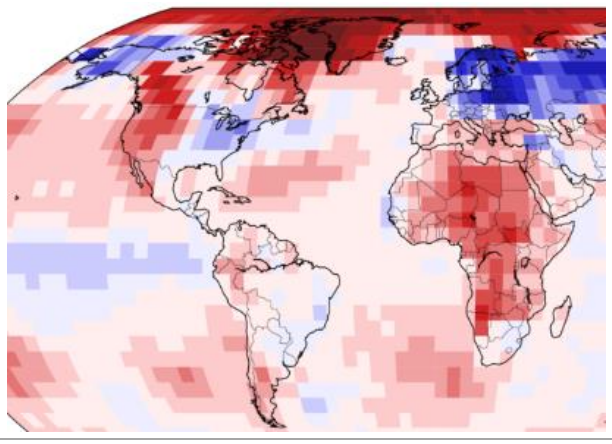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3. 미국 '25년 12월 평년대비 기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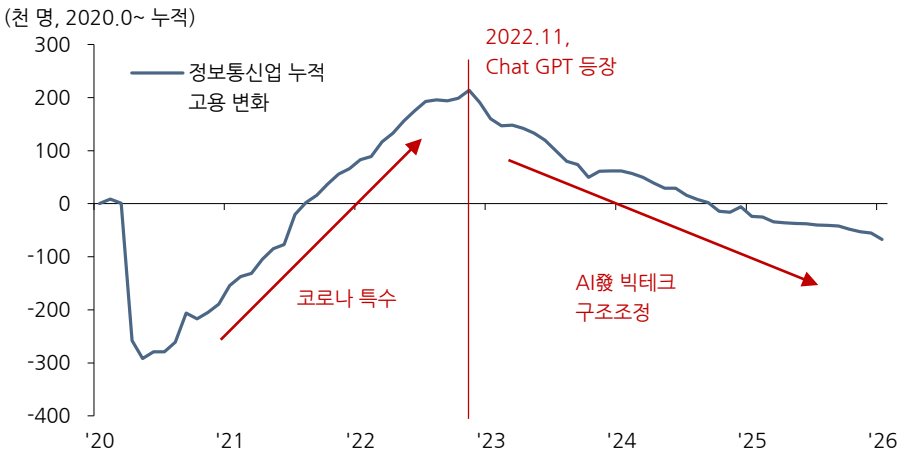
자료: NOAA

그림 4. 미국 '26년 1월 평년대비 기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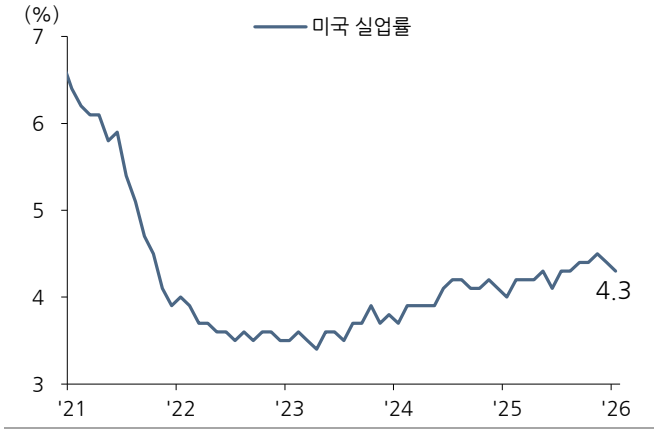
자료: NOAA

그림 5. 미국 NFP 내 정보통신업 누적 고용 변화 (2020.01~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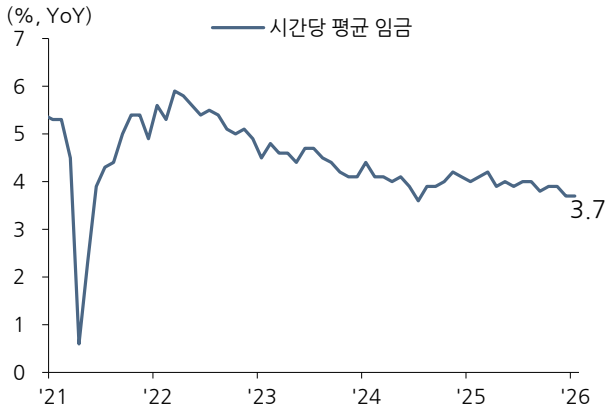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6. 미국 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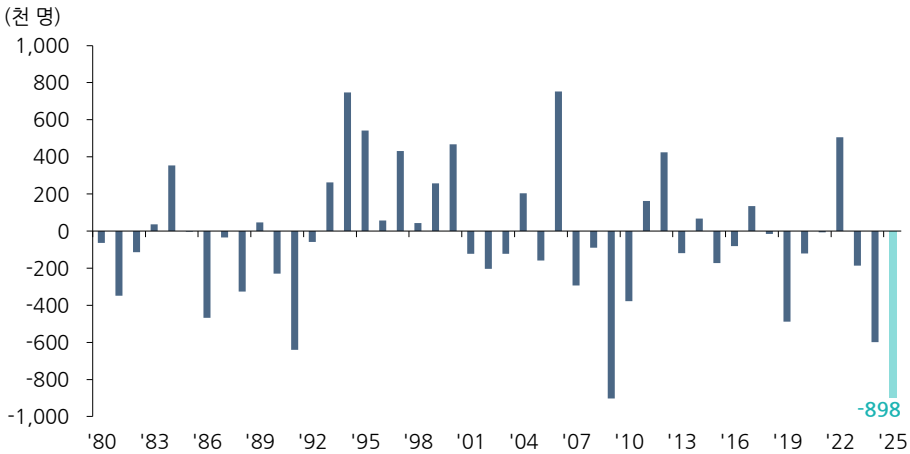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7.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


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7. 미국 비농업 고용 연간 벤치마크 수정



자료: Bloomberg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최예찬)
-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